

연변지역어의 인칭접미사에 대하여

鄭香蘭*

- I. 서론
II. 인칭접미사의 분포와 기능
III. 파생구조와 의미기능의 차이
IV. 결론

【요 약】

파생접미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접미사가 바로 명사파생접미사이다. 명사파생접미사는 주로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들로 구성된다. 연변지역어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이 명사파생접미사가 접미사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접미사 ‘-이’, ‘-개’, ‘-재:’, ‘-배:’는 모두 인칭명사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기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 지역어에 대한 연구가 음운과 어휘에 집중되고 형태론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라져가는 함경북도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중국천진사범대 강사

I. 序論

파생접미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접미사가 바로 명사파생접미사이다. 명사파생접미사는 주로 인칭명사(人稱名詞)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들로 구성된다. 연변지역어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이 명사파생접미사가 접미사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젓맥이(젓떡이)’, ‘뽕들이(대머리)’, ‘약침재:(아편쟁이)’, ‘손끔재:(손금쟁이)’, ‘김치뚜겔이(김치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사기꾼’, ‘장새꾼(장사꾼)’에서 보다시피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에는 ‘-이’, ‘-재:’, ‘-뚜겔이’, ‘-꾼’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접미사 ‘-이’, ‘-개’, ‘-재:’, ‘-배:’는 모두 인칭명사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기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 여기고 논의를 시작한다.

파생어의 기술에 있어서 결합제약을 관찰,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인칭접미사들의 분포와 기능을 살펴보고 이들 접미사들이 파생어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기술하면서 이 지역어 파생어 형성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이 지역어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용정>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조선족이 비교적 많이 집거해 있고 중국어와의 혼용 속에서도 한국어의 모습이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연변지역어에 대해서는 중국 내 학자들과 한국 내 학자들에 의해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구의 관심이 연변지역어의 음운과 어휘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²⁾. 물론,

1) 本稿에서 論議되는 派生語들은 모두 人稱接尾辭에 의해 派生되었으므로 그들을 說明함에 있어서는 人稱名詞라는 用語를 使用할 것이다.

2) 延邊地域語에 대한 研究史는 全學錫(2005:256-260)을 참조하기 바람.

이 지역어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음운에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피할 수 없음에도 형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변지역어의 파생접미사를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이 본고의 목적이자 의의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어의 접미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지역어의 음운변화의 역사와 어휘사용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II. 人稱接尾辭의 分布와 機能

本稿는 연변지역어의 인칭접미사 중에서 ‘-이’, ‘-개’, ‘-재’, ‘-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은 모두 인칭명사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그 분포와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³⁾ 의미와 기능이 비슷한 이들 접미사를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⁴⁾

1. ‘-이’

‘-이’는 다양한 파생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인칭명사를 파생시킬 경우에는 ‘명사+동사’ 어기에 결합되어 ‘젓멕이(젓먹이)’와 같은 파생어를 형성하거나 형용사의 어근을 어기로 ‘머절이, 부실이, 게절

3) 위에 제시한 인칭접미사 외에도 많은 인칭 접미사가 존재하지만 본고는 의미가 비슷한 접미사를 살펴보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기타 인칭 접미사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4) 이 地域語의 接尾辭와 中部方言의 接尾辭의 比較研究는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에서 이미 밝혔으므로 本稿에서는 이 地域語 내부에서의 공통점과 差異점을 밝혀보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등과 같은 파생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이 지역어의 접미사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N+V' 語基
젓백이(젓먹이)
- 2) 'V 語根' 語基
찢뜩이(찢름발이), 뺨질이(약삭 바르고 곳은일에서 잘 빠지는 사람), 뺨람이(울보)
- 3) 'A 語根' 語基
머절이, 부실이, 게걸이, 똥똥이, 허들이, 늙으이(늙은이), 젊으이(젊은이), 뺨뺨돌이(뺨뺨이), 뺨들이(대머리인 사람)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접미사 '-이'의 생산성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접미사 '-이'에 의해 파생된 파생어들은 이 지역에서만 쓰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 이와 같은 파생어들은 중부 방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거나 전혀 쓰이지 않는다.

예문 1)의 '젓백이'는 “젓을 먹는 어린 아이”보다는 “형제 중에서의 제일 막내”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 경우의 접미사 '-이'는 중부방언의 경우에는 '~을 하는 사람'의 기능을 하지만 지역어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했다고 할 수 있다. '명사+동사' 여기에 결합된 인칭명사는 중부방언에는 '젓먹이' 외에도 '점박이'와 같은 파생어가 존재하지만 이 지역어에서의 '점백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점이 박힌 사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문 2)는 접미사 '-이'가 '動詞語根' 여기에 결합되어 이루어진 인칭명사이다. '동사어근'을 어기로 파생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거리다' 동사의 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경우이다. 여기에 속하는 예들은 '찢뜩이', '뺨질

이'등이 있다. '절뚝이'는 '절뚝거리다'의 어근 '절뚝'을 어기로 하여 결합된 후 경음화를 거쳐서 형성된 경우이고 '뺨질이'는 '뺨질거리다'의 어근 '뺨질'을 어기로 하여 결합된 경우이다. 여기서 접미사 '-이'는 '~거리'는 사람'을 파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른 하나는 '뺨람이'에서처럼 동사의 명사화 형태를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경우이다. '뺨람이'는 '뺨뺨거리다'의 어근 '뺨뺨'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뺨뺨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파생어이다. '뺨람이'의 파생과정에 대해서는 '뺨리리'가 먼저 명사화 접미사 '-음'에 의해 명사화하여 '뺨람'으로 된 다음 다시 접미사 '-이'에 의한 파생으로 '뺨람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명사화 접미사 '-음'에 의해 파생어가 형성될 경우 '뺨람'으로 되어야 마땅한데 이 지역어에서는 '뺨람'으로 되었다. 이는 '뺨람'에 호격조사 '-아'가 결합하여 '뺨람아'로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뺨람'으로 축약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뺨람'에 다시 인칭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뺨람이'라는 파생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접미사 '-이'는 예문 3)에서처럼 '形容詞 語根'을 어기로 하여 결합되어 인칭명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머절이'는 형용사 '머절스럽다'의 어근을 어기로, '부실이'는 형용사 '부실하다'의 어근을 어기로, '게절이'는 형용사 '게절스럽다'의 어근을 어기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여기서 '부실이'는 '바보스럽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실하다'의 어근을 어기로 하여 결합된 것이다. 또 '똥똥이'는 형용사 '똥똥하다'의 어근을 어기로, '뺨들이'는 '뺨들하다'의 어근을 어기로 하여 결합되어 파생어를 형성한 경우

5) 이 地域에서의 '부실하다'와 中部方言의 '부실하다'는 다른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中部方言에서의 '부실하다'는 '몸, 마음, 行動 따위가 튼튼하지 못하고 弱하거나, 믿음성이 적거나 內容과 行動이 실속이 없음'을 나타내는 形容詞로 쓰이는 반면, 이 地域語에서는 '부족하다'나 '바보스럽다'의 뜻으로 쓰인다.

이다. 여기서 ‘뺨들이’는 ‘대머리’라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늪으이’, ‘젊으이’는 역시 형용사 ‘늪다’와 ‘젊다’에서 파생된 파생어이다. 하지만 이 둘은 형용사의 어근을 직접 어기로 하여 파생된 것이 아니라 이들 형용사의 관형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파생된 것이다. 중부방언의 경우 ‘늪은이’, ‘젊은이’처럼 관형형 어미 ‘-ㄴ’에 의해 ‘늪은’, ‘젊은’으로 되었다가 다시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늪은이’, ‘젊은이’가 되었다. 이 지역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관형형 어미가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어에서 자주 보이는 음운탈락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n]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된다⁶⁾는 것이다. ‘히들이’는 아마추어 개그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파생어인데 동사 ‘히들거리다’의 어근 ‘히들’을 어기로 하여 파생된 것이다.

이밖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보틀이(결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남자)’가 있다. 이 지역어에도 중부방언의 ‘외톨이’가 가끔 쓰이기는 하나 주로 ‘보틀이’가 쓰인다.

접미사 ‘-이’의 파생구조는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는 구조는 크게 ‘[N+V] 語根’구조, ‘[A] 어근’구조, ‘[V] 어근’구조로 나눌 수 있다. ‘[N+V] 어근’구조를 가지는 파생어들은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했다고 볼 수 있다. ‘[A] 어근’구조를 가지는 파생어들은 ‘A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며 ‘[V] 어근’구조를 가지는 파생어들은 ‘V거리는 사람’의 뜻을 나타낸다.

2. ‘-개’

‘-개’는 ‘먼지털개(먼지털이)’, ‘밥푸개(밥주걱)’, ‘손톱깍개(손톱깍

6) 자세한 내용은 전학석(1998:163~164) 참조 바람.

이)’ 등과 같은 도구명사를 파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지역어에서는 비하의 의미를 가지는 인칭명사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중부방언의 경우에도 ‘오줌싸개’, ‘똥싸개’는 ‘경멸’의 뜻을 가지면서 어린아이들을 지칭(송철의 1992:162)하여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나 어린아이에게만 제한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김창섭(1983:85)에서는 ‘-개’ 파생어가 보통은 ‘도구명사’라는 데서 사람을 도구처럼 낮추어 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역어의 경우에는 ‘사람을 도구처럼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비하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개’의 파생어들을 여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N+V’ 語基 (여기서 N은 目的語의 機能을 수행)

오줌싸개(오줌싸개), 똥싸개, 코흘리개, 남자번지개, 남자별개, 손떨개(손을 떠는 병이 있는 사람), 점치개(점쟁이), 썰쓰개(싸우거나 욕할 때 쓰는 말로서 썰을 쓰는 사람 즉 미친 듯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 오막쓰개(노망이 든 사람), 꼬디쓰개(꼬디를 잘 쓰는 사람 즉 잘 빠치는 사람), 똥푸개(재래식 화장실의 인분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청소공), 안디디개(두 발끝을 안쪽으로 우긋하게 하고 걷는 사람), 멧따개(멧쟁이), 코빨개(알콜 중독으로 코가 빨갛게 된 사람)

5) ‘N+V’ (여기서 N은 주어적 機能을 수행)

팔떨어지개(팔이 부러진 사람), 이빨빠지개, 입때지개(췌보)

6) ‘부사+V’ 語基

쫄따뻑개(발가숭이)

접미사 ‘-개’가 ‘N+V’ 어근을 어기로 결합하여 인칭명사를 형성할 경우는 예문 4)에서도 보다시피 생산성이 높다. 이 경우의 ‘-개’ 파생어들은 모두 ‘N을 V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며 여기에서 ‘N’은 목적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들 파생어들은 ‘N을 V

하는 사람'의 기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의미로 자주 쓰인다. '남자번지개'와 '남자벌개'는 'N을 V하는 사람'의 기본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남자' 이상으로 성격이 활발하고 통쾌하며 덩벙덩벙한 여자'의 의미로 쓰인다. '멋따개'는 '멋을 따다(멋을 부리다)'의 어근을 어기로 하여 결합된 파생어이다. 이 부류의 파생어들과 '-이'파생어들 사이의 분포의 차이에 대해서는 3장 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접미사 '-개'가 'N+V' 어근을 어기로 파생어를 형성할 경우 어근의 명사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 4)에서 'N'이 목적어적 기능을 수행했다면 예문 5)에서의 'N'은 주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즉 'N을 V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팔떨 어지개'는 '팔이 부러진 사람'을 의미하고, '이빨빠지개'는 '이가 빠진 사람', '입때지개'는 '입이 찢진 사람' 즉 '째보'를 의미한다. '입때지개'의 경우, '정거장'을 '덩거장'으로 발음하는 등에서처럼 이 지역어의 경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역구개음화 현상으로 '째지다>때지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⁷⁾

예문 5)는 접미사 '-개'가 '부사+V'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쫄따빠개'를 제외하면 이 부류의 파생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부류의 파생어들은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사용빈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개'의 파생구조는 크게 '[N+V] 어근' ㄱ조 (여기서 N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와 주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부사+V] 어근' 구조로 나눌 수 있다. '[N+V] 어근' 구조를 가지는 파생어들은 'N을 V하는 사람'이나 'N을 V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고 '[부사+V] 어근'구조를 가지는 파생어들은 '~게 V한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다.

7) 기타 이 地域語의 逆口蓋音化 現象에 대해서는 전학석(1998:161~162) 참조 바람.

3. ‘-재:’

‘-재:’는 중부방언의 ‘-장이’와 같은 것이다.⁸⁾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중에서 ‘-재:’가 가장 활발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 접미사 ‘-재:’는 명사와만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 접미사 ‘-재:’의 어기는 모두 명사지만 그 명사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파생어의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7) ‘N’ 어기(추상명사)

겁재:(겁쟁이), 고집재:(고집쟁이), 잔소리재:/싸기재:(잔소리쟁이), 변덕재:(변덕쟁이), 심술재:(심술쟁이), 욕심재:(욕심쟁이), 빗재:(빗쟁이)

8) ‘N’ 어기(행위명사)

ㄱ. 오입재:(오입쟁이), 거짓불재:/황통재:(거짓말쟁이), 앵내재:(흥내쟁이), 바람재:(바람쟁이), 멋재:(멋쟁이), 꼬자재:(고자질쟁이), 트집재:(트집쟁이), 지랄재:(지랄쟁이), 중매재:(중매장이)

ㄴ. 대포재:(대포쟁이)

9) ‘A’ 어기(狀態形容詞 어근)

무식재:(무식쟁이), 둔재:(둔한 사람)

10) ‘N+V’ 어기

눈백재:(소경), 기백재:(귀머거리), 누깔싸재:(애꾸눈이)

11) ‘N’ 어기 (職業關聯 명사)

애장재:(대장장이), 도배재:(도배장이), 사기재:(사기장이), 토기재:(토기장이), 글재:(글쟁이), 요술재:(요술쟁이), 연극재:(연극쟁이), 관상재:(관상쟁이), 점재:(점쟁이), 손금재:(손금쟁이), 풍각재:(풍각쟁이), 그림재:(그림장이), 땀재:(땀쟁이)

12) ‘N’ 어기 (도구명사)

8) ‘-재:’는 ‘-장이’의 음라우트형 ‘-쟁이’가 非母音化를 同伴한 후 語幹末音 ‘ㅇ’이 弱化脫落하여 ‘-재이’로 되었다가 다시 縮約에 의한 補償적 長母音化를 겪은 形態이다. 非母音化와 縮約에 의한 補償적 長音化에 관한 解釋은 曠叢圭(1988)과 채옥자(2002)를 참조 바람.

감티재:(감투장이), 삿갓재:(삿갓장이), 메가내재:(안경쟁이), 양복재:(양복쟁이), 약침재:(아편쟁이), 침재: (침쟁이)

13) 월급재:/심봉재:(월급쟁이)

14) ‘N’ 어기 (病 關聯 명사)

펫병재:(폐병쟁이), 기침재:(기침쟁이), 간념재:(간염쟁이), 위병재: (위병쟁이)

15) ‘副詞’ 어기

딱뽕재:/깍재:(깍쟁이)

예문 7)의 ‘-재:’파생어 어기들은 모두 추상명사이다. 여기서 ‘-재:’파생어는 ‘N이 많은 사람’을 나타낸다. ‘빋재:’의 경우 이 지역어에서는 債權者와 債務者를 모두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부방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⁹⁾

예문 8)의 ‘-재:’파생어 어기들은 모두 행위명사이다. ‘-재:’파생어는 ‘N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예문 중의 ‘꼬자재:’의 어기 ‘꼬자’는 중국어에 의한 차용어로 보인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중국어 단어 ‘고상’의 중국어 발음이 바로 ‘꼬우좌양’인데 여기서 ‘꼬자’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대포재:’는 ‘대포를 쏘는 사람’이 아니라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예문 9)는 상태형용사 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된 명사이다. 이 부류의 파생어들은 ‘A한 사람’을 나타낸다. 이 경우는 파생접미사 ‘-이’와 기능이 비슷하다. 다만 결합 환경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¹⁰⁾ 중부방언의 경우는 ‘무식’과 같은 상태형용사의 어근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는 어기에 결합되었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둔하다’의 어근 ‘둔-’에도 결합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접미사 ‘-재:’가 例文 10)에서처럼 ‘N+V’ 어근을 어기로 파생어를 형성할 경우 어근의 명사는 신체 부위 명사이다. 이 부류의 파

9) 참고(2004:19)참조 바람.

10) 派生접미사 사이의 비교는 3장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임.

생어들은 ‘N이 V한 사람¹¹⁾’을 의미한다. 중부방언에서의 어휘체계의 빈자리를 이 지역어의 ‘-재:’파생어가 채워준다고 할 수 있겠다.

접미사 ‘-재:’는 例文 11)에서처럼 직업관련 명사를 파생어의 어기로 할 경우,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 부류 파생어들의 ‘손금’, ‘그림’, ‘땀’등과 같은 어기들을 살펴보면 명사 그 자체만으로는 직업관련 명사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기들이 접미사 ‘-재:’와 결합하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파생명사가 된다. 이것은 ‘-재:’파생어의 어기에 상관없이 접미사 ‘-재:’만으로 그에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파생어가 직업관련 파생어가 됨을 의미한다. 즉 접미사 ‘-재:’는 명사에 붙어 그 명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例文 12)에서 ‘-재:’파생어는 ‘N을 착용한 사람’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착용할 수 있는 모든 명사가 ‘-재:’ 파생어의 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신발의 경우, ‘구두재:’와 같은 파생어는 형성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N을 착용한 사람’이 아니라 ‘N을 만드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접미사 ‘-재:’에 여러 가지 파생기능이 있음으로 하여 생긴 것이다. 다음의 예는 더 흥미롭다. ‘양복재:’는 ‘양복을 입은 사람’과 ‘양복을 만드는 사람’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접미사 ‘-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생기능에 의해 생겨난 혼동은 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일반적으로 ‘-재:’는 ‘N을 착용한 사람’보다는 ‘N을 만드는 사람’의 의미로 자주 쓰이며 또한 이 경우에 많은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 ‘N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의 예문에서 제시한 몇몇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고 또한 생산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1) 中部方言의 경우 ‘점박이’와 같은 ‘-이’파생어 形成과 같은 機能을 한다. 中部方言의 경우는 ‘-이’파생어가 이러한 機能을 수행하지만 생산성은 거의 없다.

‘N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로 사용되는 접미사 ‘-재:’는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의 용례들은 어휘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예문 13)의 ‘월급재:’에서 ‘월급’은 일반명사인데 ‘월급을 타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부류의 파생어는 ‘월급재:’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월급재:’에서의 ‘-재:’는 ‘월급을 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위의 例文 11)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예문 11)에서 접미사 ‘-재:’가 ‘그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음을 밝혔기에 유추에 의해 ‘월급재:’의 접미사 ‘-재:’도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접미사 ‘-재:’는 병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의미도 나타낸다. 이 경우의 ‘-재:’파생어의 어기가 될 수 있는 병명 관련 명사들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어기들에 ‘-재:’가 붙음으로 인해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 마치 그러한 병을 직업처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문 15)에서 접미사 ‘-재:’는 기타 경우와 달리 명사 어기에 결합되지 않고 부사 어기에 직접 결합되었다. 예문 ‘딱뽕재:’를 제외하면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파생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역어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결합 방식 때문에 살펴보기로 한다. 이 파생어의 어기 ‘딱뽕’은 아주 적은 양을 가리킬 때 쓰이는 부사이다. 이 지역어의 ‘깍재:’는 인색한 사람만 가리킨다. 중부방언의 ‘얄미울 정도로 약빠른 사람’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제 접미사 ‘-재:’의 파생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미사 ‘-재:’는 주로 ‘N’어기에 붙어 ‘N을 하는 사람’, ‘N이 많은 사람’, ‘N을 만드는 사람’, ‘N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 등

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밖에 접미사 ‘-재:’는 생산성은 낮지만 ‘A’ 어기(상태형용사 어근)이나 ‘N+V’ 어기거나 ‘부사’어기에 결합되어 ‘A한 사람’, ‘N이 V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파생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중부방언의 고유어 어휘체계에서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다.

4. ‘-배:’

‘-배:’는 중부방언의 ‘-뱅이’¹²⁾와 같은 것이다. 접미사 ‘-배:’에 의해 결합된 인칭명사 파생어들은 모두 비하의 감정을 나타낸다. 파생어의 수효는 많지 않으나 이 지역에서는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결합방식에 있어서 중부방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 용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자.

16) ‘V+-영’ 어기

비렁배:(비렁뱅이), 거렁배:(거지)

17) ‘V+名詞化素’ 어기

안즐배:(앉은뱅이), 찢뚜배:(찢름발이), 게으름배:(게으름뱅이)

18) ‘N’ 어기

쥐정배:(주정뱅이), 가난배:(가난뱅이), 불량배:

19) ‘N+V’ 어기

장똥배:/간상배:(장돌뱅이)

예문 16)에서 보면 접미사 ‘-배:’는 중부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동사에 ‘-영’이 결합되고 다시 그 결합된 형태를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이룬다. 여기서 ‘-영’은 명사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어에서는 이러한 파생어가 ‘비렁배:’ 외에도 ‘거렁배:’가 있어 그

12) ‘-뱅이>-배:’의 변화는 줄고(2004:21)에서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생산성을 기대해보게 된다. 또한 ‘비렁배:’에서 유추하여 ‘거렁배:’라는 파생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거렁배:’의 어기는 분명치 않으나 짐작컨대 ‘움직임’의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거렁배:’는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빌어 먹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걸하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乞’이 그 어기일 것이다.

접미사 ‘-배:’는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관형형 형태를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결합할 수도 있다. 중부방언에서는 예문 17)에서 보다시피 관형형 어미 ‘-ㄴ’을 취하는데 반하여 이 지역어에서는 관형형 어미 ‘-을’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부방언에서는 ‘절름발이’, ‘게으름뱅이’에서처럼 ‘-뱅이’ 파생의 결합규칙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알아볼 수 없다. 파생어의 의미는 ‘그것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8)의 ‘쥐정배:’와 ‘가난배:’는 결합방식에 있어 중부방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문 19)의 ‘장뜰배:’도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결합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접미사 ‘-배:’가 ‘장을 돌다’의 어근을 어기로 하여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접미사 ‘-배:’는 인칭명사만 파생시키는 접미사며 ‘-배:’에 의해 이루어진 파생어들은 모두 비하의 감정을 나타낸다. 접미사 ‘-배:’의 파생구조는 [‘V+’-영’ 어기] 구조, [‘V+名詞化素’ 어기] 구조, [‘N’어기] 구조, [‘N+V’ 어기]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파생어는 크게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 ‘그것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접미사 ‘-배:’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 어기를 분류하고 그에 의해 파생된 파생어의 의미를 귀납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파생어들이라는 데서 그 중의 하나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기타의 ‘-배:’파생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인칭명사를 파생시키는 몇 개의 접미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3장 부분에서 이 접미사들의 파생구조와 의미기능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III. 派生構造와 意味機能의 差異

<人稱접미사들의 派生構造와 意味 機能 對照表>

접미사 분류	派生 構造	意味 機能
-이	‘N+V’ 어기 ‘V’ 어기 ‘A’ 어기	◆ ‘N을 V하는 사람’ ◆ ‘V거리는 사람’ ◆ ‘A한 사람’
-개	‘N+V’ 어기(주어 機能) ‘부사+V’ 어기 ‘N+V’ 어기(目的語 機能)	◆ ‘N이 V한 사람’ ◆ ‘~게 V한 사람’ ◆ ‘N을 V하는 사람’
-재:	‘N’ 어기 ‘A’ 어기 ‘N+V’ 어기	◆ ‘N을 V하는 사람’, ‘N이 많은 사람’ ◆ ‘A한 사람’ ◆ ‘N이 V한 사람’
-배:	‘V+-영’ 어기 ‘V+名詞화소’ 어기 ‘N’ 어기 ‘N+V’ 어기	◆ ‘V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 ‘N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 ‘N을 V하는 사람’

위의 表에서도 보듯이 인칭접미사들은 파생구조나 의미기능에 있어서 공통점을 보임과 동시에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인칭접미사 ‘-이’, ‘-개’, ‘-재:’, ‘-배:’는 모두 ‘N+V’의 공통어기를

가진다. 접미사 ‘-이’가 ‘N+V’ 어기를 가질 경우, 파생어의 의미는 ‘N을 V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한 ‘젓맥이’를 제외하면 생산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N+V’를 어기로 하여 ‘N을 V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파생어를 만들 수 있는 접미사에는 ‘-개’가 있다. 어기의 ‘N’가 목적어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접미사 ‘-이’와 같은 의미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접미사 ‘-개’의 생산성은 상당히 높다. 이처럼 접미사 ‘-이’와 접미사 ‘-개’에 의한 파생이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음운론적 결합 환경에 있어서도 둘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접미사 ‘-이’의 어기는 폐음절 용언 어근이고 접미사 ‘-개’의 어기는 개음절 용언 어근이라는 것이다.

접미사 ‘-재’도 ‘N+V’어근을 어기로 가지지만 형성된 파생어의 의미기능은 ‘-이’나 ‘-개’와 다르다. ‘N+V’어근을 어기로 하는 ‘-이’나 ‘-개’의 경우에는 파생어의 의미가 ‘N을 V하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하지만 접미사 ‘-재’가 ‘N+V’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면 그 의미는 ‘N이 V한 사람’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에 ‘-배’가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접미사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이’와 ‘-개’, ‘-재’와 ‘-배’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다.

1. ‘-이’와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접미사 ‘-이’와 ‘-개’는 ‘N+V’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으며 형성된 파생어의 의미가 ‘N을 V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에 의한 파생어는 어휘화된 ‘젓맥이’를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고 ‘-개’에 의한 파생어는 생산성이 높다.

접미사 ‘-이’가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은 ‘N+V’어근, ‘V’어근, ‘A’

어근을 어기로 하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접미사 ‘-개’가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은 ‘N+V’ 어근(N이 주어 기능) ‘부사+V’ 어근, ‘N+V’ 어근(N이 목적어 기능)을 어기로 하는 경우이다. 접미사 ‘-이’가 형용사 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는데 반해 접미사 ‘-개’는 형용사 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없다. 접미사 ‘-이’는 ‘N+V’어근을 어기로 할 경우 생산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는 생산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이 지역 어에서 사용빈도도 높다. 이들 두 접미사가 의미기능에 있어서도 서로 상보적 분포관계를 이루고 있음은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접미사 ‘-이’에 의한 파생어 ‘젓맥이’의 기본 의미는 ‘젓을 먹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는 ‘N을 V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파생어를 형성하지 못한다. 반면, 접미사 ‘-개’에 의한 파생어 ‘오줌싸개’, ‘똥싸개’, ‘꼬디쓰개’ 등에서처럼 파생어의 의미는 ‘N을 V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로부터 두 접미사가 의미기능에 있어서 결합 환경이 같은 조건(‘N+V’어근을 어기로 하는 경우)에서 접미사 ‘-이’가 가지는 의미기능과 접미사 ‘-개’가 가지는 의미기능이 서로 상보적 분포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재:’와 ‘-배:’의 공통점과 차이점

접미사 ‘-재:’와 ‘-배:’는 ‘N+V’어근과 ‘N’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그 의미기능에 있어서 형성된 파생어의 의미가 ‘N을 V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접미사와 ‘-재:’와 ‘-배:’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기는 ‘N+V’어근과 ‘N’어기이다. ‘눈맥재:’와 ‘장똥배:’가 ‘N+V’어근을 어기로 파생어를 형성한 경우이다. 여기서 접미사 ‘-재:’와 ‘-배:’를 바꾸어 보면 ‘눈맥배:’와 ‘장똥재:’라는 파생어가 형성되는데 이러

한 단어는 중부방언뿐 아니라 이 지역 한국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접미사가 결합 환경이 같아도 두 접미사를 교환하여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접미사 각각의 의미기능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접미사가 같은 어기를 가지고 파생어를 형성하더라도 ‘-재:’파생어는 ‘N이 V한 사람’을 나타내고 ‘-배:’파생어는 ‘N을 V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접미사 ‘-재:’파생어의 어기에서 ‘N’는 주어적 기능을 담당하고 ‘-배:’파생어의 어기에서 ‘N’는 목적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재:’파생어에서 어기의 ‘N’가 목적어적 기능을 수행하면 파생어를 형성할 수 없고 ‘-배:’파생어에서 어기의 ‘N’가 주어적 기능을 수행하면 마찬가지로 파생어를 형성할 수 없다.

접미사 ‘-재:’와 ‘-배:’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기는 ‘N’어기이다. ‘겹재:’, ‘싸기재:’와 같은 ‘-재:’파생어와 ‘쥐정배:’, ‘가난배:’와 같은 ‘-배:’파생어들이 그 예이다. ‘-재:’파생어들은 ‘N’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고 ‘-배:’파생어들은 ‘N’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두 접미사의 의미기능에서 ‘-재:’의 의미가 ‘-배:’의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 다시 말해서 두 접미사의 의미기능을 집합으로 표시한다면 {‘-재:’ $\supset$ ‘-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재:’파생어의 어기와 ‘-배:’파생어의 어기를 교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싸기배:’, ‘*겹배:’ 등에서 보다시피 접미사를 ‘-배:’로 바꾸어서 사용되는 일은 없다. ‘?쥐정재:’, ‘?가난재:’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접미사 ‘-재:’와 ‘-배:’는 ‘A’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무식재:’, ‘둔재:’와 같은 ‘-재:’파생어와 ‘가난배:’, ‘불량배:’와 같은 ‘-배:’파생어가 그 예가 된다. ‘-재:’파생어는 형용사 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하고 ‘A한 사람’을 나타내며 ‘-배:’파생어도 형용사 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하고 ‘A한 사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두 접미사 모두

같은 어기를 취하고 형성된 파생어 역시 모두 ‘A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두 접미사의 서로 바뀌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가령 ‘무식배:’, ‘둔배:’, ‘가난재:’, ‘불량재:’ 등과 같은 파생어들이 허용될 수 있을까? 중부방언에서도 ‘무식배이’이나 ‘가난쟁이’와 같은 파생어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사용되지 않는다. 이 지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식배:’나 ‘가난재:’와 같은 파생어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 두 접미사의 의미기능보다는 결합되는 어기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무식하다’나 ‘둔하다’와 같은 부류의 어휘와 ‘가난하다’, ‘불량하다’와 같은 부류의 어휘가 같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집합이 가지는 특성이 다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재:’파생어의 어기로 되는 ‘무식하다’, ‘둔하다’ 등 형용사들은 사람의 대뇌활동과 관련되는 지각형용사이고 ‘-배:’파생어의 어기로 되는 ‘가난하다’, ‘불량하다’ 등 형용사들은 사람의 활동과 관련되는 행위형용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 두 접미사가 서로 다른 어기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첫째는 접미사 ‘-재:’는 부사 어근을 직접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지만 접미사 ‘-배:’는 부사 어근을 직접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딱뽕재:’에서 부사 ‘딱뽕’에 직접 접미사 ‘-재:’가 결합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부사들에도 마찬가지로 접미사가 직접 결합되는지는 검증이 더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미 조사된 파생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접미사 ‘-재:’에 비해 접미사 ‘-배:’는 ‘V+-영’, ‘V+名詞化素’ 어기를 가지며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접미사 ‘-배:’는 ‘비렁배:’, ‘거렁배:’나 ‘안즐배:’, ‘찢뚜배:’, ‘게으름배:’와 같은 파생어를 형성하지만 ‘-재:’는 ‘*비렁재:’, ‘*거렁재:’, ‘*안즐재:’, ‘*찢뚜재:’, ‘*게으름재:’와 같은 파생어를 형성할 수 없다. 이 역시 두 접미사의 의미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이 경우의 ‘-배:’파생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게 된다.

IV. 結論

연변지역어는 한국어의 방언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변지역어 한국어 화자들 중에서 60세 이상의 화자들이 아직도 이주전의 한국어를 구사하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본 방언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작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어의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연변지역어, 형태, 인칭접미사, 파생어, 방언, 결합 환경, 인칭 명사

參考文獻

- 郭忠求(1993), 「함경도 방언 연구의 전개과정과 그 전망」,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 郭忠求(1994), 『咸北 六鎭 方言의 音韻論』, 太學社, pp.219~235.
- 郭忠求(2000), 「육진방언의 현황과 연구 과제」, <한국학논집> 34, pp. 328~362.
- 金泰均(1986), 『咸北方言辭典』, 경기대 출판부.
- 全學錫(1998), 「연변 방언」, <새국어생활> 제8권 제4호, pp.153~180.
- 全學錫(2005),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의 실태 및 특성」, <방언학>

- 제2호, 한국방언학회, pp.249~268.
-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3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359~374.
- 정향란(2004), 「中國 延邊地域 韓國語의 파생접미사 研究」, 仁荷大學 校 碩士學位論文, pp.9~22.
- 蔡玉子(2002), 「中國 延邊地域 韓國語의 音韻體系와 音韻現象」, 서울 대학교 博士學位 論文, pp.32~35.
- 崔明玉 외(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pp.112~155.
- 崔明玉(2000), 「中國 延邊地域의 韓國語 研究」, <韓國文化> 25, pp.177~62.

A Study On The Personage Suffixes Of Yan Bian's Local Language

Zheng, Xiang-Lan

Noun derivative suffix occupies most places in derivative suffixes. These suffixes are mainly composed of the suffixes which derive the personage nouns. Most part of the suffixes of the local language of Yan Bian consists of the noun derivative suffixes. Among the noun derivative suffixes, '-i', '-gae' and '-jae:', '-bae:' are used in deriving all of the personage nouns. But they show some concrete differences when they are combined with bases. The studies on phonology and vocabulary of Yan Bian's local language are plenty, but more research needs to be done in morphology. At this point, the study on morphology is deemed necessary.

Key words : Yan Bian's local language, morph, personage suffix, derivative, dialect, combinative environment, personage noun

정향란

중국천진사범대 강사(인하대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중국 내 주소: 300-387 中国天津市西青区延长线393号天津师范大学外国语学院
韩语教研室 郑香兰

전화번호: 86-133-4208-3781(중국)

전자우편: jungxl@naver.com, zhenglan0@hanmail.net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